

## 2010

### 무역투자정책실

1. WTO/DDA 협상의 최근 동향 및 전망
2. 세계 지역무역협정 추진 동향 및 전망
3. 무역 현황 및 전망
4. 투자 현황 및 전망



- ▶ 2009년 개최된 다수의 정상 및 각료급 회합에서 2010년 내 DDA협상 타결 목표라는 정치적 모멘텀이 형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WTO/DDA 협상은 여전히 시장개방 수준과 개도국특별긴급관세(SSM), 분야별자유화 등 핵심쟁점에 대해 회원국간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아 협상 전망이 그리 낙관적이지는 않음.
- 향후 DDA 협상은 협상 타결을 위한 정치력 집중 여부와 주요국들의 국내 정치상황, 즉 2010년 하반기 미국 중간선거, 브라질 대선, 미 행정부의 TPA 획득 여부 등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특히 오는 11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까지의 논의 진전 상황에 따라 정상회의 이후가 되어야 보다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임.
- ▶ 지난 2010년 상반기 동안 추가적으로 WTO에 통보된 지역 무역협정은 총 13건이며, 2010년 6월 30일 현재 누계기준에 따르면 총 279건에 달함. 2010년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이어 세계 경기의 회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세계 각국의 FTA 추진 움직임도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세계 각국들은 경기 침체시에 나타났던 보호주의의 움직임보다는 자국 기업들의 수출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보

다 적극적으로 FTA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 ▶ 2010년 1~6월간 우리나라의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35% 증가하였으며 수입은 더욱 큰 폭인 40% 증가하였으나, 무역수지는 190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며 전년도 동기 수준(194억 달러 흑자)을 유지함. 세계경제가 완전한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하반기에도 우리나라의 수출과 수입은 높은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임.
- 단, 2009년 중반 이후 원화 환율의 평가 절상이 계속되었는데, 시차를 두고 영향을 나타내는 환율의 특성상 하반기 수출에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 2010년 1/4분기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는 전년동기대비 8.1% 감소한 15.4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하반기 외국인직접투자는 글로벌 경제회복 기미와 국경간 M&A 증가에 따라 완만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남유럽 재정위기 등의 위험요소에 의한 부정적인 영향의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음.
-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한국 및 전세계의 실물경제 여건개선으로 인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1. WTO/DDA

## 가. WTO/DDA

■ DDA 협상은 2008년 12월 배포된 세부원칙 제4차 수정안 이후, 농산물과 비농산물(NAMA)의 시장접근 정도를 놓고 선진국과 개도국이 이견을 보여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음.

- 세계경기침체와 더불어 여전히 교착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DDA는 2009년 개최된 다수의 정상 및 각료급 회합에서 2010년 내 DDA 협상 타결 목표라는 정치적 모멘텀을 형성한 바 있음.

글상자: DDA 협상 진전방안이 논의된 2009년(하반기) 주요 회의

- 비공식 DDA 통상장관회의(뉴델리, 2009. 9. 3~4): 본격적 협상재개 계기 마련
- 제3차 G20 정상회의(피츠버그, 2009. 9. 24~25): 2010년 DDA 협상 타결 목표 확인
- APEC 정상회의(싱가포르, 2009. 11. 14~15): 2010년까지 DDA 타결을 촉구하는 정상선언문 채택
- 제7차 WTO 각료회의(제네바, 2009. 11. 30~12. 2): 2010년 DDA 타결 목표 확인. 2010년 1/4분기 중 장관급회의를 개최하여 DDA 협상 현황을 점검(stock-taking)하기로 합의(Chair's summary)

■ 2009년 상반기에도 별다른 진전이 없었던 DDA 협상은 2009년 하반기부터 협상그룹별로 세부원칙 수정안을 놓고 기술적인 협상을 벌여 왔으며, 양자 및 복수국간 협의가 병행되었음.<sup>1)</sup>

■ 2009년 11월 개최된 제7차 WTO 각료회의에서는 DDA 협상을 2010년 내 마무리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10년 1/4분기에 장관급회의를 개최하여 협상현황을 점검(stock-taking)하기로 하였으나, 그동안 별다른 협상의 진전이 없어 3월 협상점검회의는 장관급회의가 아닌 고위급회의로 개최되었음.

- 결국 3월 stock-taking 회의는 라미 WTO 사무총장의 향후 협상 진행방식에 대한 언급 이외에 별다른 성과 없이 종료되었음.

1) 미·인도, 미·브라질 간 양자협 의 개최, EU 주도의 복수국간 협의(G-15) 개최, (G-15: 미국, EU, 한국, 일본, 중국, 인도, 브라질, 호주,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멕시코, 인도네시아, 남아공, 이집트, 캐나다).

- 라미 WTO 사무총장은 향후 협상 진행방식과 관련하여, ① 협상그룹별 의장 주도 협상, ② 특정분야 또는 수평적 이슈에 관한 양자 및 소규모 협의, ③ 사무총장이 무역협상회의(TNC) 및 협상그룹과의 빈번한 협의를 개최 등 다양한 형식의 협상을 동시에 진행하는 '칵테일 접근법(cocktail approach)'을 적용할 것을 제안하였음.

■ 2010년 3월 stock-taking 회의 이후에는 협상그룹별 협상, 복수국간 협의, 양자협 의, 라미(Lamy) WTO 사무총장 협의 등 다양한 형태의 논의(cocktail approach)가 진행되었음.

- 4월 개최된 G5(미국, EU, 인도, 중국 브라질) 회의와 5월에 개최된 G19<sup>2)</sup> 회의는 특별한 성과 없이 막을 내렸음.

- 5월에 개최된 OECD 장관회의에서 협상 프로세스와 관련, 기존의 다자프로세스 및 양자협의 외에 새로운 방안으로서, 전체 협상분야를 아우르는 수평적 접근(horizontal process)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였음.

- 또한 협상시한에 대한 구체적 언급 없이 APEC 통상장관회의, 토론토 및 서울 G-20 정상회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정치적 의지를 결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전반적인 지지가 있었음.

- 특히 라미 WTO 사무총장은 수산보조금의 기술적규정 개선, 공산품, 서비스, 환경제품에 대한 시장접근 강화를 위해 'added quantum'이 필요함을 강조함. 브라질, 인도, 중국 등 일부 국가들은 'added quantum'과 수평적 협상이 DDA 협상 종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며, 개도국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비판하였음.

■ 한편 6월에 개최된 APEC 통상장관회의에서는 WTO DDA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촉구하는 특별성명<sup>3)</sup>을 채택하였으며, 협상을 직접 담당하는 WTO 회원국 고위관리들과 주제네바 대사가 다양한 방식(configuration)을 통해 DDA 협상에 임하고,

2) 한국, EU, 미국, 인도, 일본, 캐나다, 호주, 스위스, 중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남아공, 인도네시아, 멕시코, 부르키나파소, 잠비아, 모리셔스, 바베이도스.

3) APEC 주요 합의 사항(DDA 촉구 특별성명)

- 자유화 세부원칙(modalities)을 포함한 협상 진전 사항에 기초
- DDA 협상의 진전을 위해 합의 가능한 이익의 균형을 도출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고, 최종 결정을 위한 정치적 개입 강화 필요
- 주제네바 대사와 SOM이 다양한 방식의 협상을 진전시키고, 필요시 각료급이 관여
- 최종단계협상(end game)을 준비하기 위해 수평적 협의 개시

각료급도 관여하는 등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기술적, 정치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음.

■ 이와 같이 DDA 협상은 여러 국제회의와 다양한 협상방식을 동원해 협상의 돌파구 마련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2. 2010 DDA

■ 2009년 개최된 다수의 정상 및 각료급 회합에서 2010년 내 DDA 협상 타결 목표라는 정치적 모멘텀이 형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핵심쟁점에 대한 회원국간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 DDA 협상의 전망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음.

- 특히, 농업·비농산물 세부원칙 4차 수정안에서의 시장개방 수준과 개도국특별긴급관세(SSM), 분야별자유화 등 핵심쟁점에 대해 미국 등 선진국과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주요 개도국 간의 타협이 이루어지느냐가 협상 진전의 관건이라 할 수 있음. 그러나 미국은 중국, 브라질, 인도 등 주요 개도국의 충분한 시장개방 없이는 협상타결이 어렵다는 입장인 반면, 중국, 브라질 등은 기존 협상안의 변경 및 개도국의 추가적인 양보는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음.

- 더욱이 2010년 DDA 협상은 상반기 장관급회의 개최시기마저도 회원국간 이견으로 결정하지 못하는 등 초반부터 순조롭지 못했고, 특히 라미 WTO 사무총장이 장관급회의의 개최를 제안하였으나 미국이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음.

- 또한 2010년 3월중 개최된 협상점검회의(stock-taking)와 이후 개최된 복수국간 회의, 라미 WTO 사무총장 협의, OECD 장관회의, 토론토 G-20 정상회의 등도 DDA 진전의 별다른 성과 없이 종료되었음.

■ 이상과 같은 논의 진행상황으로 볼 때, 2010년 내에 DDA 협상 타결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함.

- 그러나 각료들의 정치적 결단 여부에 따라 급진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DDA 협상이 별도의 재정공급 없이 경제회복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고용창출 및 보호주의 저지를 위한 경기부양책이 된다는 점에서 협상의 조속한 타결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동의 인식이 있음.<sup>4)</sup>

4)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2010)에 따르면, DDA 협상에서 농

- 현재 협상의 담보상황에서 타협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는 주요 협상국간의 새로운 이익 균형을 찾아내는 것임. 미국 및 주요 개도국 등이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이익의 균형은 향후 협상의 타결 가능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를 제공하게 될 것임. 따라서 이에 대한 회원국의 다자간, 양자간 협의는 앞으로 더욱 다양해지고 가속화될 것임.

■ 향후 DDA 협상은 협상타결을 위한 정치적 집중 여부와 주요국들의 국내 정치상황, 즉 2010년 하반기 미국 중간선거, 브라질 대선, 미 행정부의 TPA 획득 여부 등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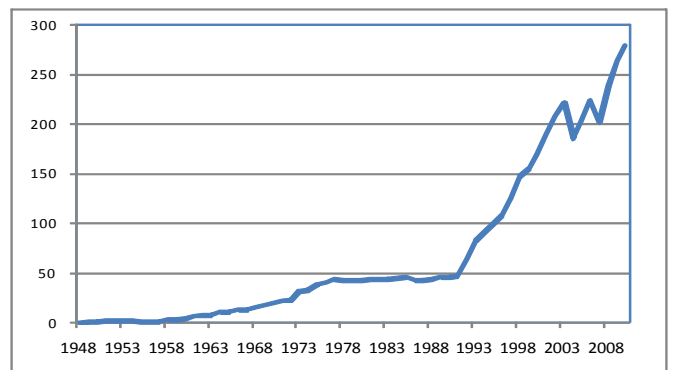
- 특히 DDA 협상은 오는 11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까지의 논의 진전 상황에 따라 정상회의의 이후가 되어야 보다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임.

2.

가. (RTA)

■ 지난 1948년 GATT 창설 이후 1994년까지 누계기준으로 91건을 기록하였던 지역무역협정은 WTO 출범 이후 오히려 더욱 큰 폭의 증가추세를 보여 2010년 6월 30일 현재 누계기준으로 총 279건에 달함(WTO에 통보되고 발효 중인 지역무역협정 기준).

그림 1. WTO에 통보되고 발효 중인 RTA(2010년 6월 30일 기준)



자료: WTO 홈페이지(<http://www.wto.org>).

■ 총 279건의 RTA 가운데 GATT 제24조에 의거한 상품무역협정이 170건(FTA 155건, CU 15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업·NAMA 모델리티에 따른 관세감축분 이외에 추가적으로 NAMA 협상의 분야별자유화, 서비스, 무역원활화 협상이 타결될 경우, 전 세계 수출은 3,841억 달러, GDP는 2,827억 달러 증가한다고 밝히고 있음.

하며, GATS 제5조에 의거한 서비스무역협정이 80건, 권능부여조항(Enabling Clause)에 근거한 개도국간 특혜협정이 29건을 차지함.

표 1. 유형별 지역무역협정체결 현황(2010년 6월 30일 현재)

관련 WTO 규정	기존 RTA 가입	신규 RTA 체결	총계
GATT 제24조(FTA)	2	153	155
GATT 제24조(CU)	6	9	15
권능부여조항(Enabling Clause)	1	28	29
GATS 제5조	3	77	80
총계	12	267	279

자료: WTO 홈페이지(http://www.wto.org).

■ 지난 2010년 상반기 동안 추가적으로 WTO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은 총 13건임. GATT 제24조에 의거한 상품무역협정이 6건, GATS 제5조에 의거한 서비스협정이 5건, 그리고 권능부여조항(Enabling Clause)에 근거한 협정이 2건으로 주요 내용은 [표 2]와 같음.

표 2. 2010년 상반기 WTO에 통보된 신규 RTA(2010년 6월 30일 현재)

관련 조항	협정	WTO 통보일	발효일	협정 유형
GATT 제24조	페루-중국	2010.3.3	2010.3.1	FTA
	터키-몬테네그로	2010.3.12	2010.3.1	FTA
	EU-세르비아	2010.5.31	2010.2.1	FTA
	ASEAN-호주-뉴질랜드	2010.4.8	2010.1.1	FTA
	온두라스-엘살바도르-대만	2010.4.6	2008.3.1	FTA
	EU-산마리노	2010.2.24	2002.4.1	CU
GATS 제5조	페루-중국	2010.3.3	2010.3.1	EIA
	아세안-호주-뉴질랜드	2010.4.8	2010.1.1	EIA
	온두라스-엘살바도르-대만	2010.4.6	2008.3.1	EIA
	EC-몬테네그로	2010.6.18	2010.5.1	EIA
	파키스탄-중국	2010.5.20	2009.10.10	EIA
권능부여조항(Enabling Clause)	MERCOSUR-인도	2010.2.23	2009.6.1	PTA
	인도-아프카니스탄	2010.3.8	2003.5.13	PTA

주: FTA: Free Trade Agreement, EIA: Economic Integration Agreement (2007년 7월 통계부터 서비스협정(service agreement)이 EIA로 개칭됨), PTA: Preferential Trade Agreement.  
 자료: WTO 홈페이지(http://www.wto.org).

■ 한편 2010년 6월 말 현재 주요국들의 FTA 추진현황은 [표 3]과 같으며, 금년 상반기 동안 추가로 협상이 타결되거나 협상이 개시된 FTA를 언급하면 다음과 같음.

- 한국은 지난 2010년 1월 인도와의 CEPA를 발효한데 이어, 터키와 금년 4월 제1차 FTA 협상을 개시하였으며, 콜롬비아와는 각각 3월과 6월에 2차, 3차 FTA 협상을 개최함. 또한 금년 5월 뉴질랜드와 제4차 협상을, 호주와는 제5차 협상을 개최함.

- 중국은 지난 3월 페루와의 FTA를 발효시켰으며, 지난 4월에는 코스타리카와의 FTA에 공식 서명함. 또한 6월 말에는 대만과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을 체결하여 현재 연간 1천억 달러 규모인 양국간 교역규모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EU는 지난 3월 콜롬비아 및 페루와 각각 FTA를 타결함에 따라 이들 국가에 대한 공산품 수출 증가를 기대하고 있으며, 같은 달 싱가포르와도 FTA 협상을 개시함.

- 한편 지난 1월 호주·뉴질랜드·ASEAN FTA가 발효됨에 따라 호주는 역내국들에 대해 자국 상품 96%에 대한 관세를 철폐할 예정임.

표 3. 세계 주요국들의 FTA 추진현황(2010년 6월 말 현재)

국가	기체결 FTA	협상 중인 FTA	검토 중인 FTA
미국	NAFTA, 미국-CAFTA-DR, 모로코, 바레인, 싱가포르, 오만, 요르단, 이스라엘, 칠레, 콜롬비아, 파나마, 페루, 한국, 호주	FTAA, SACU, 말레이시아, UAE, 에콰도르, 태국	뉴질랜드, 대만, 이집트, 베트남, 쿠웨이트, 파키스탄
캐나다	EFTA, 요르단, 이스라엘, 칠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페루, 파나마	FTAA, CARICOM, CA4, MERCOSUR, 도미니카공화국, 한국, 싱가포르, EU, 우크라이나	안데안공동체, EU, 일본, 태국, 인도
MERCOSUR	멕시코, 이스라엘, CAN, 인도, 칠레	EU, GCC, FTAA, 멕시코, 모로코, MERCOSUR-인도-SACU, 캐나다, 이집트	EFTA, 미국, 한국, 중국
EU	EFTA, 남아공, 레바논, 메케도니아, 멕시코, 모로코, 시리아, CARIFORUM, PLO, 아제르바이잔, 알바니아, 안도라(CU), 알제리, 요르단, 이스라엘, 이집트, 칠레, 크로아티아, 터키, 튀니지, 한국, 콜롬비아, 페루	ACP, GCC, MERCOSUR, 이란, CAC, CAN, ASEAN, 리비아, 몬테네그로, 베트남,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세르비아, 에콰도르, 우크라이나, 이라크, 인도, 캐나다, 싱가포르, 인도,	일본, 캐나다, 파키스탄

표 . 계속

국가	기체결 FTA	협상중인 FTA	검토중인 FTA
한국	ASEAN, EFTA, 미국, 싱가포르, 칠레, EU, 인도	GCC,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캐나다, 페루, 콜롬비아, 터키	MERCOSUR, 러시아, 중국, 일본, SACU, 이스라엘
중국	ASEAN, 마카오, 칠레, 파키스탄, 홍콩, 뉴질랜드, 싱가포르, 페루, 코스타리카	GCC, SACU, 아이슬랜드, 호주, 노르웨이, 대만	인도, 한국, MERCOSUR, 스위스, 남아공
일본	ASEAN, 말레이시아, 멕시코, 브루나이, 싱가포르, 베트남, 인도네시아, 칠레, 태국, 필리핀, 스위스	GCC, 인도, 호주, 페루	대만, 캐나다, 미국, 뉴질랜드, EU, 한국
호주	뉴질랜드, 미국, 싱가포르, 칠레, 태국, 파푸아뉴기니, 뉴질랜드-ASEAN	UAE, GCC, 한국, 말레이시아, 일본, 중국	멕시코, 인도, PIF, TPP,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Trans Pacific SEP, 싱가포르, 중국, 태국, 호주-ASEAN, 홍콩, GCC, 말레이시아	한국, 인도	멕시코, 미국, 일본

자료: 한국무역협회(http://fta.kita.net) 자료를 재구성하여 작성.

. RTA

■ 2010년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이어 세계 경기의 회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세계 각국의 FTA 추진 움직임도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됨.

- 세계 각국들은 경기 침체시에 나타났던 보호주의 움직임보다는 자국 기업들의 수출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FTA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 더욱이 하반기에도 다자간 무역자유화 협상인 DDA 협상이 큰 진전을 보이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각국들은 양자간 무역자유화 정책을 통해 자국 기업의 수출활로를 개척하고자 할 것으로 보임.

■ 한편 우리나라가 추진 중인 FTA 관련 전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2009년 10월 가서명을 마친 한·EU FTA는 협정문 번역작업과 정식서명을 마친 후 EU측과 우리측의 비준절차를 완료하여 금년 하반기 내 발효될 것으로 전망됨.

- 지난 2007년 6월 체결된 한·미 FTA는 3년 이상 한국과 미국 양국에서 비준을 얻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오바마

미 대통령이 “가능한 한 11월까지 한국 측과 실무작업을 마무리하고 수개월 내 미 의회에 한·미 FTA 비준을 요청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구체적인 비준 일정이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함.

○ 오는 11월에 미국 내에서 중간선거가 치러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양국간 비준절차는 11월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한편 중국과는 지난 2007년 3월부터 2010년 5월에 걸쳐 산관학 공동연구를 마무리 짓고, 상호 민감부문 처리방안에 관한 추가적인 의견 교환을 위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조만간 양국 정부 차원의 FTA 공식 논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됨.

○ 한·중 FTA에 대해 양국 정상이 적극적인 추진 의사를 밝힌 만큼 향후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FTA 논의 진전은 한·미 FTA와 한·유럽연합(EU)의 비준 일정을 촉진하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가. 2010

■ 2010년 1~6월간 우리나라의 수출<sup>5)</sup>은 2,225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35.0% 증가하였으며, 수입은 더욱 큰 폭으로 증가하여 전년동기대비 40.0% 증가한 2,035억 달러를 기록함.

- 수출과 수입 모두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내수 회복으로 인해 수입이 수출보다 더욱 큰 폭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냄.

-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역수지는 같은 기간 중 190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여 전년도 동기 수준(194억 달러 흑자)을 유지함.

■ 수출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무역 감소가 시작되기 직전인 2008년 동기(1~6월)의 규모에 비해 약 4% 증가한 수준으로서 불황으로부터 완전히 회복되는 양상을 보임.

5) 6월의 총 수출입 및 무역수지 데이터는 지식경제부가 2010년 7월 1일 발표한 잠정치를 사용함. 6월의 국별, 품목별 수출입 데이터는 6월 1일~20일간의 잠정치를 사용함.

- 그러나 이러한 증가율은 2000~08년간 연평균 수출 증가율 11.9%에는 못 미치는 수준으로 아직 수출 증가 잠재력이 완전히 표출된 단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됨.

- 수입 역시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 동기간(1~6월)의 규모를 거의 회복하였으나(2008년 동기간에 비해 약 7.8% 낮은 수준), 2000~08년간 연평균 수입 증가율인 13.3%에는 못 미치는 수입.

■ 1월 1일 ~ 6월 20일간 對선진국 수출은 577억 달러(전년동기 대비 26.4% 증가), 對개도국 수출은 1,459억 4,100만 달러(37.8% 증가)로서 對개도국 수출이 전반적인 수출 증가세를 견인함.

- 국별/지역별 수출은 선진국 가운데 미국이 215억 7,000만 달러(30.3% 증가), 일본이 118억 9,400만 달러(30.6% 증가), EU가 239억 4,200만 달러(13.2% 증가)를 기록하였으며, 개도국 가운데는 중국 519억 2,800만 달러(49.4%), ASEAN 237억 6,000만 달러(43.3%), 대만 61억 6,200만 달러(73.9%) 등을 기록함.

- 국별/지역별 수입의 경우, 거의 모든 주요 국별/지역별로 높은 수입 증가율을 시현하는 가운데, 유가 상승과 수요 증가로 인해 중등으로부터의 수입 증가율이 높음(377억 1,300만 달러, 전년동기대비 45.1%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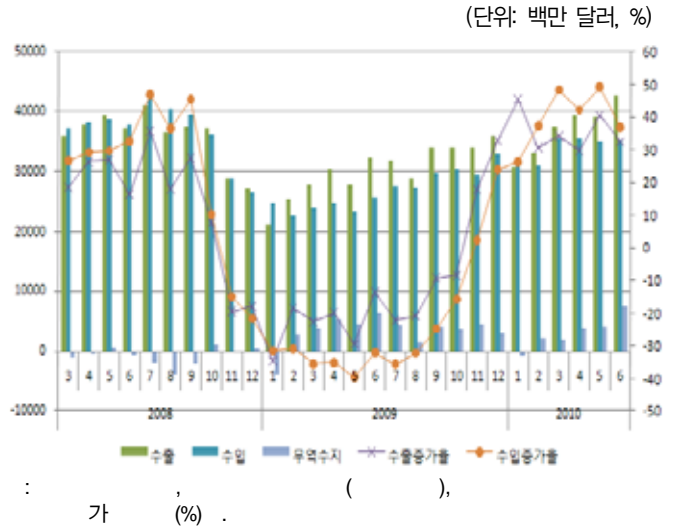
○ 또한 반도체장비, 정밀기계, 농산물 등의 수입증가로 인해 對미국 수입액이 전년동기대비 57.3% 증가한 188억 5,600만 달러를 기록함.

■ 주요 품목별 수출의 경우, 1월 1일 ~ 6월 20일간 반도체(234.3억 달러, 전년동기대비 97.3% 증가), 자동차 부품(88.1억 달러, 89.6%), 자동차(169.3억 달러, 57.7%), 석유제품(142.5억 달러, 49%), 액정 디바이스(142.8억 달러, 47.0%) 등의 증가세가 두드러짐.

- 그러나 무선통신기기 수출은 수출단가의 하락으로 인해 전년동기대비 17.9% 감소한 126.0억 달러를 기록함.

■ 품목별 수입의 경우, 같은 기간 중 국내수요 증가와 유가 상승으로 인해 원유(331억 달러, 전년동기대비 56.9% 증가)와 석유제품(93억 달러, 89.1%) 등 원자재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함.

그림 2. 한국의 월별 수출입 동향



2010

■ 2010년 하반기 우리나라의 수출은 세계 각국의 전반적인 경기 회복에 따라 상반기에 이어서 높은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됨.

- 세계경제가 금융위기 충격으로부터 서서히 벗어나 2010년 동안 플러스 성장(약 3~4%)이 예상됨.

○ 선진국의 경우 2% 안팎, 개도국의 경우 약 5~6%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sup>6)</sup>

○ 2010년 상반기 미국, 일본, EU 등 선진국권과 중국, ASEAN 등 개도국권 국가 대부분이 플러스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EU 국가는 상대적으로 낮은 1% 이하의 성장률을 나타냄<sup>7)</sup>.

- IMF의 2010년 4월 발표(World Economic Outlook)에 따르면, 2010년 세계무역(상품+서비스)은 7%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2009년 -10.7%)되며, 선진국과 개도국의 수입 증가율은 각각 5.4%, 9.7%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개도국의 경기 회복세가 더욱 두드러지며, 이는 하반기에도 對개도국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6) IMF의 2010년 2월 G-20 재무차관회의 시 보고한 자료와 Global Insight가 2010년 3월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것임.

7) 이상은 각국의 2010 2~3월간의 발표 자료를 근거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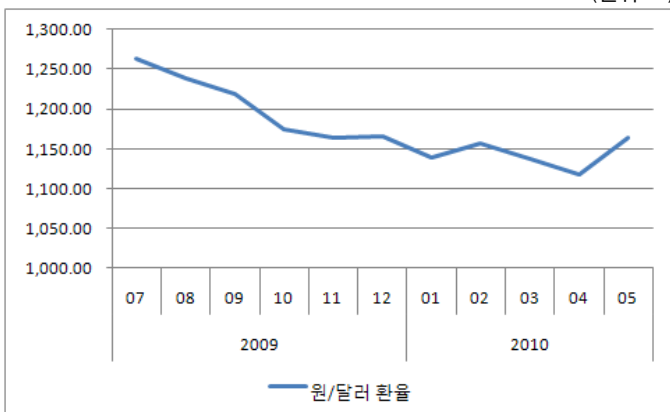
■ 품목별로는 반도체,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영상기기 등 주요 수출품목의 수출 호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sup>8)</sup>

- 반도체의 경우 컴퓨터, 스마트폰, TV 등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수출 증가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반도체 경기가 다소 둔화되면서 수출 증가세가 완화될 가능성도 있음.
- 자동차는 북미·중남미·중동 등의 수요확대로 수출 호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수요 확대에 힘입어 자동차 부품 역시 현지공장에 대한 공급 증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액정디바이스는 신흥국 중심으로 수요가 확대되면서 수출 호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무선통신기기는 판매가격 하락과 같은 악재가 있으나,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시장이 성장하는 것은 하반기 호재가 될 것으로 보임.
- 선박은 금융위기로 신규 수주량이 감소하여 수출이 둔화되었으나, 하반기에 들어서 해외발주가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2009년 중반 이후 원화 환율의 평가 절상이 계속되었는데, 시차를 두고 영향을 나타내는 환율의 특성상 하반기 수출에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하반기에도 환율 절상이 지속될 경우 이후 수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그림 3. 최근 원/달러 환율 추이(월평균)

(단위: %)



자료: 한국은행

■ 원유 수입이 우리나라의 전체 수입과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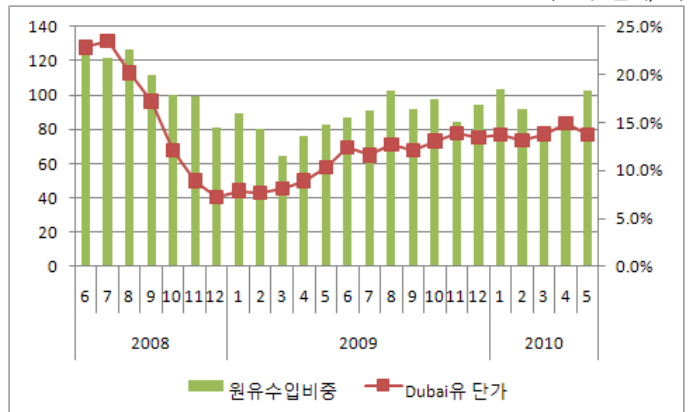
- 국제유가는 2009년 초 이후 완만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음.

며, 아울러 국내 수요도 증가하면서 우리나라의 총수입액에서 원유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음.

- 그러나 하반기 공급 증가로 인해 급격한 유가 상승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전체 수입과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그림 4. 유가와 원유수입 비중(전체수입 대비)의 변화 추이

(단위: 달러, %)



주: 좌축은 유가, 우축은 원유수입 비중.  
자료: 한국석유공사, 한국무역협회.

■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중국시장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으므로 급성장하는 중국 소비시장이 주는 기회를 활용하면서 동시에 잠재적인 위험요인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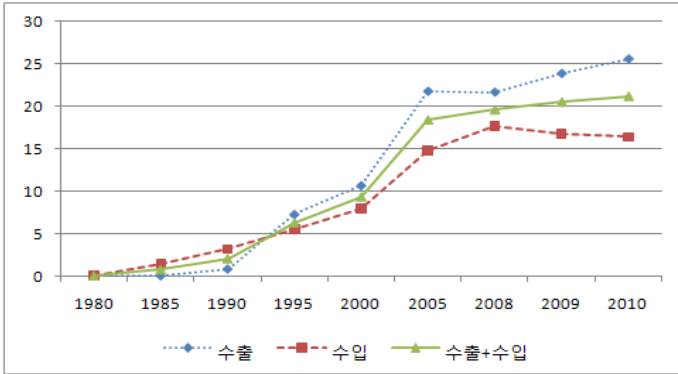
- 중국의 소비시장은 2009년 자동차 판매량(1,364만 대), 휴대전화 가입자(7억 4,738만 명), 인터넷 사용자(3억 8,000만 명) 등에서 세계 1위를 기록하는 등 급성장하는 추세임.
- 2008년 세계경제 성장에 대한 중국의 기여도는 22%로, 2009년~11년에는 50%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며(UN; The Economist, 2010. 4. 22), 중국이 세계경제 성장의 엔진으로 부상함.
- 우리나라의 對중국 무역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수출이 중국 경기에 크게 영향을 받으며 대중 통상 압력에도 취약해지는 등 위험요인이 존재하므로, 중국 경제의 투명성과 공정성, 개방성을 확보하기 위한 통상 외교적 노력이 요구됨.

- 우리나라의 전체 무역규모에서 對중국 무역(수출+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처음으로 20%를 넘어섰으며, 2010년 1~6월 20일간 21.2%를 기록함.

8) 품목별 전망은 지식경제부의 월별 수출입 동향 보도자료 참고.

그림 5. 한국의 對중국 무역비중 추이(1980~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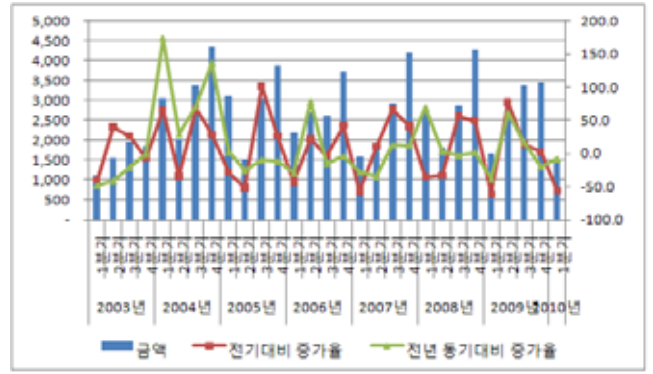
(단위: %)



주: 2010년은 1~6월 20일간 수치임.  
자료: 한국무역협회.

그림 6.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단위: 만 달러, %; 신고금액기준)



주: 금액은 왼쪽, 증가율은 오른쪽임.  
자료: 지식경제부 외국인투자정보.  
(<http://www.mke.go.kr/info/foreigner/sumTotal.jsp>)

## 4.

가.

### 1) 외국인직접투자

■ 2010년 1/4분기 외국인직접투자는 15.4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8.1% 감소함.

- 세계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외국인직접투자가 위축되었고, 원화 가치가 상승하는 등 국내적 요인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됨.

■ 네덜란드(3.2억 달러)와 아일랜드(2.0억 달러)를 중심으로 EU의 對한국 투자는 증가하였으나 미국과 일본의 투자는 감소하였음.

- 2010년 1/4분기 EU로부터의 투자는 8.4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57.4% 증가하였으며, 총 외국인직접투자의 54.7%를 차지함.

- 미국으로부터의 투자는 3,987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88.9% 급감하였으며, 일본에 의한 투자 역시 60.4% 감소한 2.6억 달러로 총 외국인투자의 19.6%(미국 2.6%, 일본 17.0%)에 그침.

- 한편 투자비중이 높지는 않지만 중국으로부터의 투자가 전년동기대비 244.2% 급증한 3,228만 달러를 기록함.

■ 산업별로는 2010년 1/4분기 전기·전자, 식품 등에 대한 투자 감소로 인해 제조업은 전년동기대비 28.4% 감소한 6.5억 달러였으며, 서비스업은 금융·보험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중심으로 전년동기대비 8.7% 증가한 8.2억 달러를 기록함.

- 제조업의 주요 투자 산업인 전기·전자는 1.1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86.4% 급감함. 반면 화공과 의약품에 대한 투자가 폭증하여 각각 1.9억 달러와 2.0억 달러를 기록하며 제조업에 대한 총 외국인직접투자의 60.6%를 차지함.

- 서비스업의 경우 도·소매 유통에 대한 투자가 7,331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75.8% 감소하였으며, 부동산·임대가 4.1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90.9%로 급성장하였고, 금융·보험업(2.3억 달러)과 음식숙박업(1,155만 달러)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14.4%, 304.5%로 증가하였음.

○ 2010년 1/4분기 부동산·임대와 금융·보험업에 대한 투자는 서비스 산업에 대한 총 외국인투자의 77.7%를 차지함.

■ 2010년 1/4분기 한국에 많은 투자를 한 EU와 일본의 산업별 투자현황을 살펴보면, EU의 경우 의약품, 금융·보험, 부동산·임대 등에 주로 투자하였고, 일본의 투자는 화공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에 편중되어 있음.

- 아일랜드는 의약품 산업에 2.0억 달러, 네덜란드는 금융·보험과 부동산·임대업에 각각 1.6억 달러, 1.5억 달러를 투자하였으며 이는 총 외국인직접투자의 34.1%에 해당함.

- 일본의 경우 화공에 대한 투자가 1.3억 달러로 일본의 對한국 투자의 48.7%를 차지함.



■ 2010년 1/4분기에는 M&A형 투자가 급증한 것이 특징으로 전년동기대비 184.1% 증가한 5.3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Greenfield형 투자는 전년동기대비 32.3% 감소한 10.1억 달러를 기록함.

2) 해외직접투자

■ 2010년 1/4분기 해외직접투자는 31.2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2%, 전기대비 61.1% 감소함.

- 해외직접투자는 대형투자의 감소와 지난 분기 투자 확대에 따른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전기대비 큰 감소세를 보였으나 3월에는 10.1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0.4%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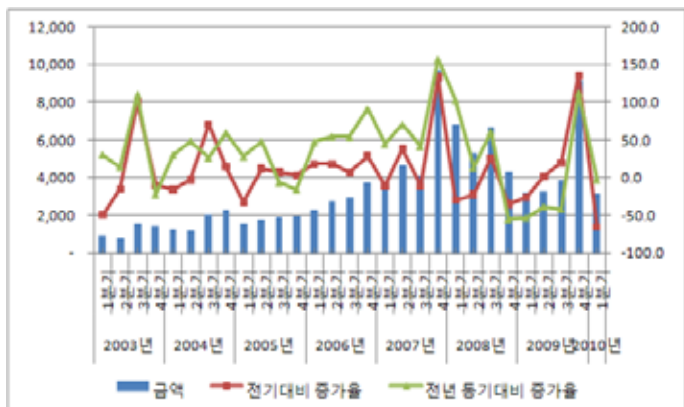
■ 국가별로는 중국 및 미국에 대한 투자가 여전히 활발함. 2010년 1/4분기 미국에 5.5억 달러를, 중국에 5.3억 달러를 투자하였으며 이는 총 해외직접투자의 34.6%에 해당함.

- 2003년부터 2009년 1/4분기까지 한국의 해외직접투자(979억 달러) 가운데 중국(224억 달러)과 미국(183억 달러)이 차지하는 비중은 41.6%로, 2003년에는 61.0%를 기록하였으나 점차 그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 또한 2008년 이후부터 미국에 대한 투자가 중국에 대한 투자를 추월하고 있음.

그림 7. 해외직접투자 동향

(단위: 천 달러, %; 투자금액기준)



주: 금액은 오른쪽, 증가율은 왼쪽임.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http://www.koreaexim.go.kr/kr/oeis/m03/s01.jsp)

■ 2010년 1/4분기 산업별 투자 동향은 제조업이 11.1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0.1% 증가하였으나,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임대업 등의 서비스 산업은 감소하였음.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은 전년동기대비 48.2%로 증가한 2.6억 달러로 가장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1.4억 달러)과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1.4억 달러)도 전년동기대비 각각 98.0%와 214.4% 증가함.

○ 반면 주요 투자 산업인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에 대한 투자는 6,261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71.2%로 감소하였음.

- 2009년에 집중적인 해외투자가 이루어졌던 광업에 대한 투자는 7.7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0.2% 감소하였으나 총 해외직접투자의 24.8%로 여전히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음.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3.7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01.7%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 투자가 감소한 금융 및 보험업도 전년동기대비 36.2% 증가한 7,263만 달러를 기록함.

- 그러나 도소매업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65.2% 감소한 2억 달러이며, 부동산 및 임대업은 1.5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4.2% 감소하였음.

■ 2010년 1/4분기 중국 및 미국에 대한 산업별 투자를 보면 중국으로는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8,589만 달러),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5,567만 달러) 등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미국으로는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2.2억 달러)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중국의 경우 전통적으로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대부분이었으나 2010년 1/4분기에는 제조업에 대한 투자(3.6억 달러) 비중이 66.9%로 감소하고, 도소매업(5,435만 달러)과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4,816 달러)에 대한 투자 비중이 증가하였음.

■ 세계 경기 침체가 회복 기미를 보이며 2010년 하반기 외국인 직접투자는 완만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UNCTAD(2010)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에 의해 급감했던 세계 외국인직접투자는 2009년 중반 이후, 세계 경기가 플러스 경제 성장률을 보임에 따라 회복하고 있고, 주요 국가

의 외국인직접투자 촉진 정책에 힘입어 완만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IMF(2010)는 4월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세계경제 성장률을 3개월 만에 3.9%에서 4.2%로 상향조정함.
- 또한 2010년 1/4분기 의약품, 식품, 통신 산업 등에서의 대형 거래를 포함한 국경간 M&A가 1,000억 달러에 달하는 호조를 보이며 다국적기업에 의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음.
- 그러나 남유럽 재정 위기로 인한 세계 금융시장의 불안정성과 세계 경기 회복 둔화의 가능성, 다국적기업들의 투자 유보 등의 위험요소는 2010년 하반기 외국인직접투자의 증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 2010년 1분기 M&A 투자는 괄목할 만한 성장률을 보였으나 그린필드(greenfield)에 의한 외국인직접투자 건수는 오히려 감소하는 등 다국적 기업들은 해외 투자에 대해 신중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하반기 외국인직접투자는 중국, 인도 등 신흥시장에 대한 투자 증가, 원화 가치 상승 등의 불리한 요인이 있으나 글로벌 경제 위기의 회복에 따른 세계 투자 활성화를 위한 국제적 움직임과 한·EU FTA 발효, G-20 정상회의 개최, 국내투자 회복세 등의 국내적 환경 개선으로 인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됨.

■ 해외직접투자도 글로벌 경제회복에 따른 분위기 호전이 예상됨에 따라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하반기에 내수 확대 폭 축소, 수출 둔화 등으로 경제 성장률이 둔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 참고문헌 ■

- IMF. 2010. *World Economic Outlook; Rebalancing growth.* (April)
- UNCTAD. 2010. "Fourth Quarter of 2009 and First Quarter of 2010." *UNCTAD Global Investment Trends Monitor*, No.3
- . 2010. 「2010 1/4」 .
- . (4 7 )
- . 2010. 「」 , 1/4 .
- . 2010. 「2010」 . *SERI Economic Outlook.*

(jdkim@kiep.go.kr, Tel: 3460-1028)

WTO

(hjhyun@kiep.go.kr, Tel: 3460-1050)

WTO

(jhpark@kiep.go.kr, Tel: 3460-1136)

FTA

(khyi@kiep.go.kr, Tel: 3460-1083)

WTO

(jgkim@kiep.go.kr, Tel: 3460-1093)

WTO

(mskim411@kiep.go.kr, Tel: 3460-1113)